

##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살림집풍습

조 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서 7세기말부터 10세기초에 이르는 시기에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김정일전집》 제2권 163페이지)

발해는 고구려유민들에 의하여 옛 고구려땅에 세워진 강력한 주권국가로서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발전시켰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북방 여러 나라들의 거듭되는 침입을 막고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력사적사실에 대하여 다른 나라의 일부 문헌들에는 발해의 건국당시 첫 수도 지역이 원래 속말갈인들의 거주지역이었다는데로부터 마치도 발해가 말갈인들이 주동이 되어 세운 《말갈의 나라》인듯이 묘사하면서 《발해말갈》로 국호를 표기하고있으며(《구당서》 권199 하 렬전 149하 발해말갈)《오대사기》에서는 발해는 본래 국호가 말갈이며 고구려의 별종이라고 하면서 발해를 부정하였다.(《오대사기》 1권 74사이 발해)

이것은 발해가 고구려유민들이 세운 당당한 고구려의 계승국이었다는것을 인정하면서도 발해를 부정하고 그 력사적사실을 외곡하려는데로부터 서술된것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것은 오늘에 와서가 아니라 이미 13세기에 리승휴가 쓴 《제왕운기》에 《전 고구려의 옛 장수 대조영이 태백산 남쪽성에 의거하여 주나라 촉천무후 원년 갑신8(684년-인용자)에 나라를 세우고 이어 발해라고 이름을 삼았다.》는 기록에서 볼 수 있는것처럼 발해가 고구려유민들에 의하여 세워지고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한 나라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발해력사에 대한 인식이었다.

이 글에서는 고구려의 계승국인 발해에서 당시 사람들이 쓰고살던 살림집의 구조와 갓춤새가 고구려의 살림집 구조, 갓춤새와 일치하고있다는것을 통하여 고구려로부터 발해에 계승된 민족살림집풍습에 대하여 밝혀보려고 한다.

오랜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 우리 민족의 살림집은 초기 자연동굴과 초막으로부터 움집과 반움집을 거쳐 기둥보식의 지상살림집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삼국시기 고구려의 살림집은 대부분이 개인소농경제를 비롯한 생산활동에 합리적이면서도 방안에 앉아서 생활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생활풍습과 생활감정에 부합되게 기둥보식살림집의 민족적형식을 뚜렷이 나타내었으며 그 이후 고구려유민들이 세운 발해의 살림집구조와 갓춤새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무엇보다먼저 고구려살림집의 토방형식과 평면구조가 발해살림집에서 그대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고구려살림집과 발해살림집의 토방형식에서 계승관계가 나타나고있다.

토방은 지상살림집에서만 필요한것으로서 살림집의 미감을 돋우고 생활상편의를 도모해주는 우리 민족살림집의 고유한 구조요소의 하나이다.

우리 민족의 살림집에서 토방은 건물을 땅으로부터 한단 높여줌으로써 집의 균형을 보

장하고 돋보이게 하여준다.

고구려의 토방흔적이 알려진 대표적인 유적으로서는 동대자집자리와 정릉사터의 제10호 집자리이다.

이 집자리들의 토방은 일정한 높이로 흙과 모래를 섞어서 다져쌓은 다음 테두리는 다듬은 돌로 한돌기 면을 맞추면서 마감한 것이었다.

그리고 평안남도 순천시 룡봉리의 룡동성무덤벽화의 외성 오른쪽에 그려진 두채의 살림집토방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있다. 이와 반면에 안학궁터나 정릉사터 같은 궁전이나 절에서는 0.7~1.5m의 높이로 축대가 쌓여져있다. 이러한 차이는 건물의 기능상요구에 맞게 만들어진 것으로서 살림집에는 아담하고 단정한 미감을, 궁전이나 절에는 웅장성과 신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것은 고구려에서 살림집에 토방을 쌓는 풍습이 상당한 정도로 일반화되어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치된 고구려살림집의 토방은 실용적으로는 고래가 낮은 바닥난방시설인 구들을 보호하고 불이 잘 들게 할뿐아니라 살림집의 기초시설을 보강해주고 벽체를 보호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생활면에서 볼 때 바깥과 방안을 연결해주는 위치에 설치되어있으므로 신발을 벗고 방안생활을 하는 우리 인민의 생활풍습에 맞게 밖에서 신발을 벗고 토방을 거쳐 방안에 들어서게 하며 방안생활에서 문화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여준다.

당시 고구려와 이웃한 북방 여러 나라들의 살림집생활은 방안에서 신발을 신고 다니는 생활이었으므로 살림집에 토방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았으며 이로부터 대부분의 살림집들은 바깥과 살림방들이 토방없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방으로의 출입을 편리하게 하였다.

이것은 고구려살림집의 토방이 당시 이웃나라의 살림집과는 달리 우리 민족의 살림집 풍습에 맞게 창안되고 리용된 고유한 시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발해집자리들에서 보이는 토방은 바로 이러한 고구려살림집토방시설과 일치한 모습을 나타내고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발해의 살림집터(침전터)는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룡천부 궁성 서쪽구역에 있는 집자리, 길림성 화룡현 서고성의 집자리, 팔련성의 집자리, 함경남도 북청군 청해토성의 1호, 2호집자리, 함경남도 오매리 절골유적과 북쪽 1호건물터와 금산 1호건물터, 길림성 돈화현 오동성과 소밀성, 로씨야 원동련방구 연해변강 등 많은 지역들에서 알려졌다.

현재 발굴된 발해집자리들에는 그 어느곳을 막론하고 토방이 설치되지 않은것이 없다.

상경룡천부 궁성 서쪽구역 집자리의 토방시설을 보면 흙과 모래를 여러겹 쌓아 다지고 그 주변을 돌아가면서 잘 다듬은 돌로 토방돌을 대였으며 거기에 잇대여 물도랑이 만들어져있었다. 여기에서 동북쪽에 남아있는 토방돌하나의 크기는 62cm×22cm×36cm이며 토방의 규모는 동서 28.95m, 남북 17.31m, 높이 0.15m로서 그리 높지 않다. 그리고 이 토방돌에 의지하여 토방밖으로 물도랑이 형성되어있었다.

함경남도 오매리 절골유적, 금산 1호건물터 역시 그 구조형식이 절터구성과는 련관이 없고 살림집형식으로 되어있는 건물로서 토방시설을 갖추고있었다. 토방의 규모는 동서 20.15m, 남북 5m, 높이 0.35m로서 석비레흙으로 다져만들고 그 변두리에 기와들을 얹어

깔아 보강하였다. 여기서 겹으로 얹어서 칸 기와들은 토방돌을 대신하고있었다.

이렇게 토방을 다져서 잘 쌓는것은 습기를 방지하는것과 함께 신발을 벗고 방안생활을 하는 우리 민족의 오랜 생활풍속과 관련된것이다.

이와 같이 발해집자리들에서 보이는 토방들은 고구려살림집의 토방을 그대로 계승하고있었다.

또한 고구려살림집과 발해살림집의 평면구조에서도 그 계승관계가 명백히 나타나고있다.

집안시 동대자에서 알려진 고구려살림집은 살림집을 이루는 큰 건축군가운데 중간에서 서쪽으로 치우쳐있는 한채의 살림집과 그앞뒤 부속건물로 되어있었다. 이 살림집의 몸채는 동서 2개의 방과 그사이에 남북으로 놓인 좁은 통로로 구성되어있다. 여기서 동서의 방은 각각 그 길이가 15m안팎이었다.

이것은 고구려살림집이 여러채로 구성되면서도 평면구조에서 볼 때 가운데에 통로격의 작은 방을 내고 그 좌우에 큰 방을 하나씩 배치한 집이었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고구려의 이러한 살림집구조는 발해살림집에서 그대로 찾아볼수 있다.

발해의 상경룡천부 궁성 서쪽구역 집자리(침전터)의 평면구조를 보면 동서로 잇달린 3개의 방과 그 바깥을 둘러싼 회랑으로 이루어져있었다.

여기에서 동쪽과 서쪽의 방은 크고 가운데방은 작으면서도 사이벽에 의하여 아래, 위의 두 공간으로 나뉘어져있었다. 4궁전 본전터 역시 몸채안은 3개의 방으로 나뉘어져있었으며 량쪽 방은 크고 가운데방은 작게 만들어져있었다.

함경남도 오매리 절골유적, 금산 1호집자리는 절골유적으로 넘어가는 통로를 지키고 동해바다나 오매리벌에서 일어나는 정황을 살피는 초소격의 건물인데 그 평면구조는 동서로 잇달린 3개의 방으로 구성되어있었다. 여기에서 동쪽과 서쪽방은 큰 방으로서 그 규모는 각각 동서 8.5m, 남북 3.5m이며 가운데방은 통로격의 방으로서 그 크기는 동서 2.25m, 남북 3.5m로 되어있었다.

이것은 발해살림집의 평면구조가 고구려살림집의 평면구조와 일치하다는것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발해살림집의 난방시설이 고구려살림집의 난방시설과 일치하며 그것을 계승발전시킨데 대하여 보기로 한다.

고구려살림집의 난방시설을 보면 모두 낮고 좁은 긴 두고래의 온돌시설이었다.

고구려의 동대자유적에서 보이는 온돌들의 고래는 낮고 길며 외고래와 두고래로 되어있고 두고래의 구들고래인 경우 너비는 2m, 길이는 10여m로서 방바닥의 많은 면적을 덮히게 되어있었다.

고구려살림집의 고래구들면모는 무덤벽화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고국원왕릉과 약수리무덤벽화에서 부엌과 긴 구들고래를 그린 그림에는 한 녀인이 부뚜막에 시루를 올려놓고 음식을 만들고있으며 다른 녀인이 부뚜막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아궁이에서 지핀 불길이 긴 구들고래를 따라 굴뚝으로 빠지는것이 그려져있다.

이것은 모두 고구려사람들이 겨울에 긴 구들고래를 만들고 그밑에 불을 지펴 더위를 얻어낸다(《구당서》 권199상 열전 고려(고구려))고 한 사실과 일치한것으로서 당시 고구려에서 리용한 온돌이 고래가 낮은 긴 구들이었다는것을 말해준다.

고구려의 이러한 고래가 낮은 온돌시설은 고구려와 이웃한 나라들에서는 찾아볼수 없

으며 발해살림집에서만 나타나고있다.

상경룡천부 궁성 서쪽구역 집자리의 구들고래를 보면 동쪽방, 가운데방, 서쪽회랑에 각각 1개, 서쪽방과 북쪽회랑에 각각 2개로서 모두 7개이다. 구들고래는 모두 꺾임식고래로서 벽에 붙여 평행으로 놓았는데 북쪽회랑의 2개의 구들은 외고래이고 나머지는 두고래로 되어있었다.

구들은 토피를 4장정도 포개서 높이 30cm정도 되게 굽을 쌓고 그우에 두께 10cm 정도의 판돌을 덮었다. 여기서 고래가 2개인 경우 그 너비는 1.4m로서 방면적에서 온돌이 차지하는 넓이는 비교적 크다고 볼수 있다.

그리고 구들고래는 모두 북쪽에 있는 2개의 굴뚝과 연결되었는데 동쪽방과 북쪽회랑의 구들고래는 서로 합쳐서 동북쪽굴뚝으로 들어갔으며 가운데방, 서쪽방 및 북쪽회랑과 서쪽회랑의 구들고래는 서로 합쳐져서 서북쪽굴뚝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상경룡천부 궁성 서쪽구역 집자리는 여러개의 구들에서 나오는 연기를 2개의 굴뚝으로 뽑은 잘 짜인 난방체계를 이루고있었다.

함경남도 오매리 절골유적, 금산 1호집자리의 온돌을 보면 동서방에 놓인 2개의 온돌이 모두 두고래이며 하나는 길이가 3.8m이고 다른 하나는 3.6m인 고래가 낮은 긴 구들이었다. 같은 유적의 북쪽 1호집자리 온돌 역시 고래의 길이가 5~8m, 너비는 1.5m, 높이는 0.4m로 되어있었다.

특히 발해의 온돌구조에서 특징적인것은 두고래의 온돌들이 굴뚝과 연결되는 굴뚝목에 조돌(보조적인 온돌)이 설치되어 고래 끝부분과 굴뚝목을 덥혀주게 되어있으며 이로 하여 연기를 굴뚝으로 잘 뽑아내게 한것이다.

이렇게 발해사람들이 리용한 살림집의 구들고래시설은 고구려살림집의 구들고래시설과 일치하면서도 계승발전된 면모를 나타내고있으며 발해살림집이 고구려살림집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발해살림집의 난방시설은 구들고래와 연결된 굴뚝시설에서도 고구려살림집의 굴뚝시설과 일치하고있다.

고구려의 동대자집자리에 있는 굴뚝시설은 돌과 진흙을 섞어서 안쪽으로 면을 맞추어 밑면이 직경 4m 되게 1.5m의 두께로 둥그렇게 쌓아 굴뚝안의 공기를 보온하게 하였다. 그리고 굴뚝아래에 직경 1m 되는 개자리를 형성하였다.

정릉사터의 굴뚝 역시 가운데에 직경 1m정도의 개자리가 나있으며 그 둘레에는 기와 찌각에 흙을 묻혀 쌓은 굴뚝의 밑부분이 남아있다.

이것은 굴뚝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맞바람을 막아 구들고래로 불이 잘 들게 하기 위한 시설로 설치되었으며 고구려살림집들에서 온돌과 함께 매우 중요시한 난방시설갓춤이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발해살림집에 갖추어진 굴뚝시설은 바로 고구려의 이러한 굴뚝시설을 그대로 계승한 흔적을 잘 나타내고있다.

상경룡천부 궁성 서쪽구역 집자리의 굴뚝을 보면 굴뚝의 테는 다듬은 돌로 한줄한줄 좁히며 올려쌓아 둥그렇게 하였으며 굴뚝의 북판에는 개자리와 연기구멍을 냈다. 그리고 굴뚝둘레에는 물도랑을 만들어 토방의 물도랑과 연결시키였다.

함경남도 오매리 절골유적의 굴뚝 역시 규모가 큰 굴뚝으로서 사방 2m 되는 방형평면

으로 되어있었으며 굴뚝가운데에 직경 0.8m의 개자리흔적이 남아있었다. 이러한 굴뚝시설들은 고구려난방시설들의 굴뚝시설갓춤과 같은것으로서 그 계승관계를 잘 나타내고있었다.

당시 고구려와 린접한 나라와 민족들은 방안의 한쪽 부분에 잠자리를 만들고 그것을 덥히게 되어있는 칸, 벽난로형식의 빼찌까, 화로 등의 난방시설을 리용하고있었으며 방안생활은 신발을 신고 걸터앉거나 서서 생활하는 방식이었다. 이것은 고래가 낮은 온돌로 된 방 안에서 신발을 벗고 방바닥에 앉거나 누워자는 우리 민족의 방안생활풍습과는 완전히 다른것이다.

그러므로 앉아 생활하는데 편리한 난방시설을 갖추고 생활한 발해사람들은 다름아닌 고구려살림집의 온돌난방생활풍습을 계승한 고구려유민들이였으며 그들이 발해국의 기본주민집단을 이루고있었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이처럼 고구려로부터 발해로 이어진 민족살림집풍습의 계승발전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문화와 풍습이 끊임없이 계승되어왔으며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